

平和のために闘っておられる日本の皆様に熱い連帯の挨拶を送ります。

3月16日、日本の東京で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と岸田文雄首相による日韓首脳会談が開催されました。

尹錫悦大統領は首脳会談の成果として日韓軍事協力の強化を述べました。日本の「平和憲法」を無力化させ、「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を宣言した日本の安保三文書の改正を「理解する」として自衛隊と軍事協力を約束しました。また、強制動員被害者が30年以上闘って勝ち取った韓国最高裁の判決を否定し、被害者が望んだ加害企業の謝罪も必要ないと宣言しました。

本当に惨めな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両国政府が成果と語る軍事協力は決して朝鮮半島と東アジアの平和に何も役立ちません。対決を深め、軍備競争を煽り、平和を一層困難なものにするというほかありません。尹錫悦大統領は「新しい未来」について話しましたが、被害者の口を塞ぎながら、新しい未来に進むことはできません。

だからこそ、私たちは今日のこの19日のことを忘れてはなりません。被害者の人権が尊重され平和なアジアをつくるために、ひるむことなく私たちはより大きな声を挙げていきましょう。

毎週土曜日、ソウル市庁では数多くの市民が集まり、尹錫悦政府に向けた抗議の声を今高めつつあります。

そして、今日の「19日行動」には、韓国を訪れた米国のYMCAからも参加します。日本の平和憲法と19日行動について紹介し、平和のメッセージを記しながら、一緒に日本大使館の前に行きます。このように、私たちは志を共にする世界市民とより一層強固な連帯をつくっていきます。私たちは平和のためにひるむことなく黙々と前に向かって歩いていきます。平和は必ず勝利します！

2023年3月19日

韓国YMCA全国連盟

평화를 위해 싸우고 계신 일본의 여러분들께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일 군사 협력 강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평화 헌법’을 무력화 시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을 ‘이해한다’며 자위대와 군사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년 넘게 싸워 쟁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이 원했던 가해 기업의 사과도 필요 없다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참담한 마음입니다.

양국 정부가 성과라 이야기하는 군사협력은 결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결을 심화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겨 평화를 어렵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로운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 시청에서는 수 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일 행동은 한국을 방문한 미국 YMCA 와 함께 진행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과 19일 행동에 대해 소개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적어 함께 일본 대사관 앞으로 갑니다. 이렇듯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세계 시민들과 더욱 굳건히 연대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묵묵히 나아갈 것입니다. 평화가 승리합니다!

2023년 3월 19일

한국 YMCA 전국연맹